좌들의 눈과 말, 숨소리 등을 납납이 살피며,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게을리 않았다. 그래서 스님의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한 상좌들은 어김없이 종아리를 걷어 올려야만 했다. '공부의 엄격함'을 논하면 정일스님이 원로 스님들 중 단연 으뜸이라고 주위 사람들이 평할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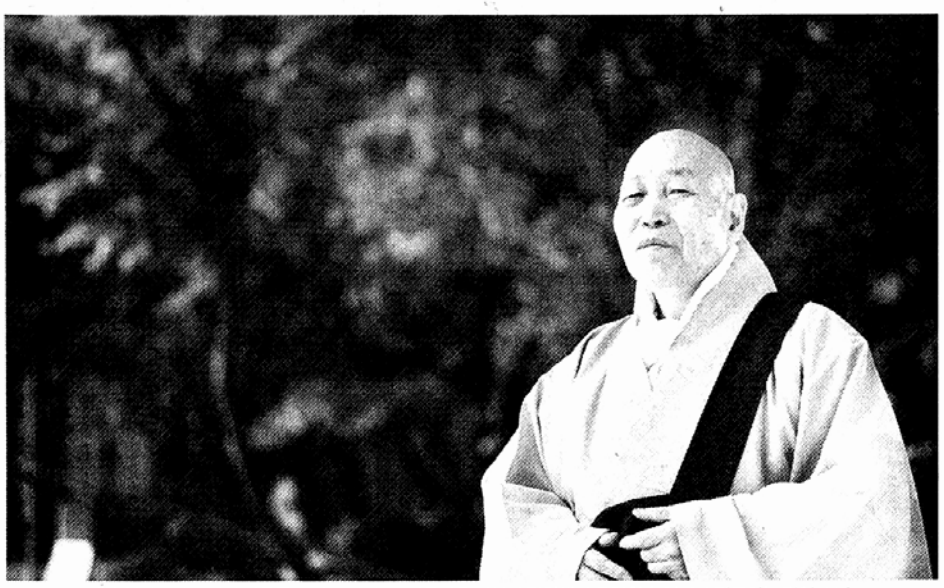
그런데 정일스님 스스로가 워낙 엄격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스님의 수행생활은 그대로가 제자들이나 신도들의 귀감이 된다. 스님은 망월사 천중선원에서의 천일기도를 통해 '목숨을 내놓은 정진'을 했다. 천일동안 기도정진하며,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몸과 마음의 나쁜 기운을 없애는 뜻으로 새벽마다 '냉욕'을 거르지 않았다.

목숨 내놓은 천일정진

당시 망월사에서는 춘성스님이 주지로 전강스님이 선원장으로 주석하고 있었다. 정일스님이 망월사를 찾은 것도 큰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해보겠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천일기도를 하겠다는 스님에게 춘성스님은 "왜 천일기도를 하려느냐, 여우가 되려고 하느냐"며 여운을 남겼다. 스님은 천일기도를 마치고 자신의 수행을 점검받기 위해 춘성스님을 찾았다. 스님은 정일스님 앞에 큰 원을 그려놓고 "들어가도 30방, 나가도 30방"이라고 일갈했다. 정일스님이 당황해 가만히 서 있자 춘성스님은 30방을 때렸다. 정일스님은 춘성스님에게 그 연유를 물었다. 그때 춘성스님은 또 30방을 때리고 "수고하셨습니다"라고만 답했다.

"처음엔 춘성스님의 말과 행동에 담긴 뜻을 알지 못했지요. 다시 선방으로 들아와서야 '말놀음에 빠지지 말라'는 가르침임이 느껴지더군요. 불법은 언어의 경계가 미치지 않는 자리에 있어요. 출가 전에 청계천 헌책방에서 〈선가귀감〉을 구해 읽었는데, 천일기도를 마친후 다시 〈선가귀감〉을 읽었어요. 읽을수록 그 의미가 분명해지더군요. 그 과정에서 머리 속에서 우글거리는 번뇌가 뚝뚝 떨어져 나가고 명료해졌어요. 번뇌가 떨어져 나간만큼 몸과 마음의 도리가 바르고 착해져, 거기서 저절로 환희심이 생겨나요. 수행정진이란 한 두 번으로 결판이 나는 일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정일스님은 수좌들 사이에서 '중단 없는 수행'으로 유명하다. 망월사 천중선원을 비롯해 스님이 수행처로 삼았던 용화사 법보선원, 통도사 영축총림 선원, 범어사 금어선원 등에서 각각 3년을 기본으로 수행했고, 그 기간동안 입선 때는 참선수행을, 방선 때는 염불수행을 했을 정도로 수행자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 수행자라면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적어도 석삼년 동안은 한번의 쉼 없이 정진해야 하고, 그래야만 품었던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고, 점검 과정에서 스승의 질타를 받더라도 다시 선방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스님의 지론이다.


◇수행자라면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적어도 3년동안은 쉼없이 정진해야 득력할수 있다고 강조하는 정일 스님.

> 마음공부 한다는 것은
> 머리 속 쓰레기 치우고
> 자기 스스로 복 짓는 일

정일스님은 간화선만을 고집하지 않고 묵조선이나 위빠사나 등 대소승의 모든 수행법을 포용한다. 스님은 "요새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한다. 각각의 강과 하천도 모두 대해로 모인다. 흘러가는 것은 과정일 뿐이다. 단지 열심히 하면 된다. 자선의 상태를 알아야 본심을 본다고 했을 때 몸과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는 위빠사나도 좋은 수행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하나에 집착해 머문다면 문제가 된다. 또한 모든 과정을 지나 구경의 단계를 넘어야 할 때는 화두참구, 간화선을 해야 한다. 간화선은 망상의 구름을 걷고 본심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마지막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방편에 떨어진 외도일 뿐이며, 번뇌망상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

어린이 포교에 열정

스님에 따르면 사람은 가죽 주머니에 달라붙은 귀신이다. 즉 번뇌망상이 사는 집과 같다. 중생들이 편을 가르고 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번뇌망상을 뒤집어쓰고 나름대로 나타난 그 경계 즉, 자기가 본 것이 제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귀신의 버릇이라, 그 껍데기를 벗지 못한 생태에서는 내내 귀신일 뿐이다. 그래서 스님은 중생을 '멍텅구리'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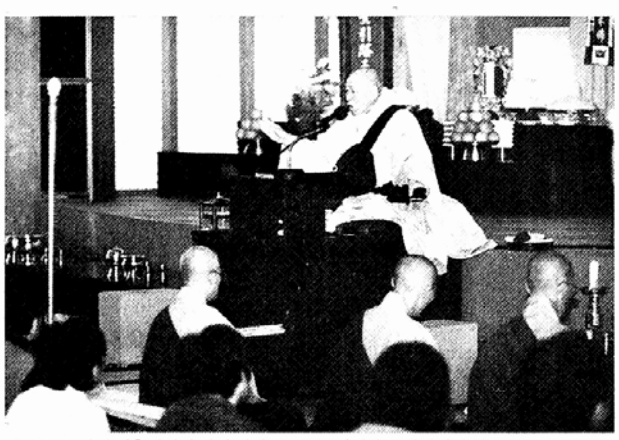
"전도몽상된 이 모든 생각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개혁해야 해요. 개혁하는 방법이 바로 인과법과 육바라밀이죠. 그 과정에서 환희심을 알게 되면 수행력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지요."

스님의 이러한 생각은 5년 전 부산에 보광사를 지으며 개원한 유치원의 교육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5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상을 3번이나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정일스님의 남다른 불교교육관이 있어 가능했다. 유치원에서는 원생들에게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자'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인과법이다. 유치원에는 제법 규모 있는 텃밭이 있는데, 이 곳에서 어린아이들은 직접 채소를 키우고, 그 변화의 과정을 기록하며 변화의 원인까지도 찾아서 쓰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친 아이들은 자연히 생명을 하나의 독립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고 서로 연결된 상호 공동체로 보게 된다.

"그 어린 머리로 '자기 얼굴은 자기가 만든다'는 생각을 할 정도라면 교육의 성과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공부도 수행과 같이 하나 하나 관찰해서 이해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기를 관찰하는 깊이가 더해질수록 자연과 자신 혹은 식물과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이때 인연법을 공부하는 것이죠."

순수함으로 불법을 쉽게 받아들인 아이들의 경우처럼, 스님은 많은 불제자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끄달림 없이 받아들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마음공부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복을 짓는 일'이다. 정일 스님은 오늘도 그 이치를 밝게 비추며, 불제자들이 그 맛을 알도록 열심히 이끌고 있다.

글=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17일 보광사 대웅전에서 열린 건설교통부 불자회 수계법회에서 법문하는 정일스님.



원욱스님의
스 님 이 야 기
유곡스님

바다 건너 한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전쟁의 고통과 두려움이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뎃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뉴스를 보며 기도하는 일 외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성인들이 다 나서서라도 저 전쟁의 불길을 끌 수는 없는 걸까? 수행자란 자신의 삶 속에서 고통을 직시하고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늘 자비를 베풀고 자신과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애써야 하건만 왜 모든 이들이 두고만 보는지 모르겠다.

난 그동안 불교계에서 하는 온갖 사회운동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했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투쟁과 혁명을 통해서라면 조만간 또 다른 사상으로 무장한 투쟁과 혁명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처럼 진리를 깨달아 진리로 세상을 변혁시켜야 한다고 믿어서였다. 세속의 인연으론 친구이고 절집 인연은 도반인 유곡(遊谷) 스님은 나와는 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 그는 비구니로서 드물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회원으로 사회운동에 적극 매진했다. 사회를 바꾸고 절집을 바꾸는 온갖 운동 속에는 항상 스님이 있었다. 불교의 자비정신과 계율, 포교, 수행, 이 모든 진리의 가르침이 사회변혁의 혁명사상과

"부처님 진리로 개혁해야"
참여운동 적극적 활동

만나, 중생과 승가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는 종교적 신념이 되어 있었다. 스님이 강한 신념으로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투쟁해 갈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어느날 유곡스님과 나는 차 한잔 하며 현실참여문제 등 이야기를 나누었다.

"난 현재의 불교가 민중에게 다가서는 모습이 참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너무 권위적이야. 스님은 성직(聖職)이 아님에도 무슨 신성불가침의 존재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로지 참선수행만을 하며 이 불타는 사바세계의 혼란으로부터 비켜서서 두 눈과 귀를 막고 수행만을 강조하잖아. 중생들은 억압 속에 고통받으며, 젊은 청춘들이 날마다 스러지고 있는데 너무 현실사회를 외면한다는 것은 종교인으로도, 수행자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현실참여라는 것이 꼭 깃발 들고 거리로 나서고 집회라는 것을 통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 운동권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본연의 수행자 모습으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현실의 고통 해결법도 불교식으로 해야한다고 봐. 스님들은 불교수행자로서 불교적인 방법과 시각을 가지고 현실참여를 해야하는데 내 보기엔 그냥 일반 사회운동하는 이들과 별 다른 바가 없어서 싫다. 괜히 운동한다고 들썩거리지 말았으면 싶어. 그동안 스님이 얼마나 투쟁적으로 변했는지 알아? 때때로 난 너무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 두려워. 그 부정적 사고가 스님을 망칠 것 같고 한편으로 저러다 데모진압대에 잡혀 맞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냐?" "스님은 이 뼈아픈 현실이 아무렇지도 않나? 저 고통 속에 헤매는 이들의 소리에도 두 다리 쭈욱 뻗고 잠이 와? 난 그렇게 못한다. 위정자들이 바뀌기 전에 스님들의 의식세계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길을 갈거야. 내게 희망의 말을 하지 않을 거라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 주라. 내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 좀!"

그날 이후로 그런 심각한 대화는 커녕 만나도 형식적인 눈인사 외엔 좀처럼 말도 하지 않았다. 스님은 변함없이 사회참여로 현실세계를 극락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았고, 나는 포교하는 것으로 내 수행을 삼았다. 우리는 서로가 갈 길이 다른 이들처럼 지냈지만 난 나름대로 스님이 속한 세상에 대해 공부했다. 내 도반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날이면 날마다 최루탄 연기 속에서 헤매는 수많은 젊은 청춘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난 그렇게 슬슬 변하면서 바로 졸업을 했고 스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그 덕분에 승가는 확연히 변했고 종단내의 각 분야에서 많은 진보가 있었다. 유곡 스님을 비롯한 사회운동에 적극적인 스님들의 노고였다는 것을 잘 안다.

지난 해 겨울 우연히 만나 의기투합해 잘 있던 말사 소임을 서로 휙 벗어던지고 만행을 할 때였다. "원욱스님, 나 오랫동안 너무 부정적인 면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 세상엔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말이야. 편안한 마음자리를 찾고 싶다." 그 소릴 듣는 순간 난 가슴이 찌르르 해졌다. 그것은 혁명을 잃어버린 사회운동가의 말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 53선지식을 만나고 들아온 선재동자의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머지않아 깨달은 이의 가르침 속에서 기쁨과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젊은 수행자 유곡스님은 덧없는 이 시간을 넘고 세월을 넘어서 니르바나, 저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름처럼 구름을 헤치고 나온 둥근 달이 유유자적하게 산하대지 계곡까지 온 세상을 밝게 비추리라. 그래도 만나면 나는 '반전(反戰)운동'은 하라고 권하고 싶다.

서울 반야사 주지

문수사리 소설 마하 반야바라밀경
<문수 소설 반야경>
우리나라 불교계에 처음 소개되는 경전
한글역 「문수사리 소설 마하 반야바라밀경」
문수보살이 설하는 심원한 지혜와 복덕의 경전

문수사리 소설 마하 반야바라밀경 (문수 소설 반야경)
문수사리 소설 반야바라밀경을 읽고 외우며 바르게 생각하고 그 뜻을 잘 이해하면 큰 공덕과 이익이 있나니 지혜로운 자는 응당 일심으로 이 문수 소설 반야경을 소중히 하고 뭇 중생을 도와서 안락하게 하고 공덕을 쌓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신통력으로써 문수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는 이가 있으면 마땅히 수호해주리라!
크기 19cm×25.5cm
134쪽
정가 4,000원
구입문의 : 연 화 불 교 출 판 사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2동 932(반월당보현사앞)
전 화 : (053)253-1923 / (053)524-8711
핸드폰 : 011)536-1923

목초액수액시트
"발바닥에 붙여 몸속 독을 빼는 배독요법"
일본 화제의 상품!!
효과 없을 시 환불 !

◆판매가
30대 44,000원/국산
60대 85,000원/국산
50,000원/30매 일본산
99,000원/60매
▶ 발과 불편안(목, 어깨, 허리, 팔, 무릎등)부위에 사용 경쾌하게 합니다.
▶ 자고나면 몸속 노폐물이 누렇게 변한 것을 직접 확인
▶ 발에 붙여서 상쾌하고 쾌적하게 하여 주는 건강상품
▶ 일본 히트 상품 / 국내 인기 상품
인터넷 : www.gaja.tv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께 효도선물
몸이 붓고 손발이 차고 저린 분, 피로하신 분, 종일 서서 일하는 분 (매장근무), 산후조리, 운동 선수 / 항상 피곤한 분, 각종 사고 후
가자목초
(02) 5454-010
농협 063-02-124288 이수열
모 집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 딜러

하루면 충분합니다.
참 나 체 험 chamna chehum
불교의 참나, 주인공, 기독교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알라, 선도의 상제,
동학의 한울림을 체험하여 일체의 존재와
조화로이 화하여,
진실을 밝히는 세상, 행복을 찾아주는 세상,
다함께 잘사는 세상을 구현키 위한 길.
스스로 온전한 지혜와 복덕을 구족한
참나를 체험하여 마음과 몸의 병을 치유하고
삶과 죽음에도 메이지 않는 대자유인이 됩시다.
각자 약사여래불이요, 관음이요,
지장보살의 화현임을 확인합시다.
수행문의
대전본원 : 042)533-0569
서울 강남지원 : 02)543-2849
*영가의 장에 원인모를 질병 신기가 있는 분 일이 잘 안되는 분 짧은 시간에 극복이 가능합니다
생활참선 제 5의 수행법
참 나 체 험 www.chamna.net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제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낳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빌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읍니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염가에 드리고져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5천원을 1만5천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북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